

어설픈 자치단체, 지역 현안사업 다 놓친다

광주시 LED 식물재배공장·남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허술한 타당성 조사 국비 반납 중도 포기...주민 혼란 키워

광주시와 광주 남구 등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설픈 행정처리로 졸졸이 좌초되고 있다.

사업 타당성을 허술하게 분석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예산을 구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해 주민 혼란은 물론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국비 등 100억원을 들여 조성하기로 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4만9809㎡ 규모로 양과동 일원에 화훼체험시설, 정원, 허브식물원, 도시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 호응도가 높았다. 하지만, 사업 시행 3년째인 올 연말까지 21억34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은 물론 이미 받은 국비와 시비 40억원도 반납할 처지다. 토지보상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토지보상 및 수용 절차 이행이 불가능해 결국 사업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구가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승촌동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남구는 애초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을 지난 2011년 7월 포기했다. 그간 사용했던 국비와 시·구비 1억9000만원을 오는 7월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승촌동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사업

은 지난 2010년 2월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2011년에 국비와 시비 2억4600만원을 교부됐다. 이 예산으로 남구는 8820만원을 들여 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환경부·주민대표·남구청 직원 등 9명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으로 2000여 만원을 들여 해외 견학까지 다녀왔다. 하지만 남구는 주민반발로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 여기에 썼던 예산 3200만원을 오는 7월까지 추경에 편성해 반납해야 한다.

남구가 뒤늦게 사업을 포기한 것은 녹색마을을 조성사업의 주요 부분인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통한 전기 생산 시설이 악취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구가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승촌마을을 250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외부 음식물을 매일 10t 정도를 가져와 처리해야만 운용수지가 맞

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남구는 약취와 소음, 환경 오염 문제를 이유로 2011년 7월 광주시에서 사업 철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도 10년 넘게 방치됐던 서방지하상가를 'LED 식물재배공장'으로 부활시키겠다고 나선지 2년 만에 사업을 포기했다. 지원받은 국비 13억원도 반납했다. 이는 시가 서방지하상가 아래에 광케이블이 대량 매설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데다, 이를 옮기기 위해선 2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당시 광주시는 식물재배 공장이 완공되면, 각종 견학코스로 활용돼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9
달출 07:46 달짐 21:44



Weather forecast table with columns for time (오전, 오후), wind direction, and temperature. Includes a table for '주간 날씨' (Daily Weather) for the week of 19/25 to 20/27.

광주 모 고교서 체벌 '물의를' '숙제 안했다' 수학교사가 1학년 10명에 최대 50대까지

시교육청, 진상 파악키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과도하게 체벌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S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S고 1학년 기간제 수학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학생 10명을 때로 심하게 때렸다. 학생들은 수 학문제풀이 숙제를 하지 않은 문항 수 만큼 때로 맞았다. 1문제당 1대씩,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50대 가까이 나무 지시봉으로 체벌을 당했다. 학생들은 엉덩이에 시퍼런 멍자국이 들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해당 교사는 오래전부터 범위를 정해 숙제를 내줬으나 일부 학생들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아 지난 16일 보충수업 때 최후통

첩으로 '숙제를 하지 않을 경우 체벌하겠다'고 예고한 뒤이 같이 때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아이들이 미워서라기 보다 열심히 가르치려다가 무리하게 체벌한 것 같다"며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감은 "체벌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 당혹스럽다. 3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열정적이지 않다면 방법을 쓴 것 같다"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교직원회의를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시켰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학사를 보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붕어도 못사는 영산강

최근 붕어떼 700여마리가 떼죽음 당한 채 발견된 광주 시 서구 서창교 아래 영산강에서 18일 어른 손바닥만한 붕어가 또 죽은 채 떠올랐다. 그 뒤편에서는 영산강환경영역청 관계자들이 하천 오염 방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강 녹조 발생 1번지 구진포 구간

인공수초 재배섬 놓고 '전시행정' 논란

환경전문가들 "수질정화 식물 심기보다 죽산보 해체해야"

영산강 녹조 발생 1번지 영산강 구진포 구간에 들어설 '인공 수초 재배섬'을 놓고 전시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발생하는 녹조현상이 가장 먼저 관찰되는 곳에 수질정화식물 100여본(本)을 심어 녹조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발상이지만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견해다.

■ 인공 수초 재배섬 위치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과 지류 하천이 만나는 나주 회진교와 구진교 지점에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정화식물을 심어 녹조 발생을 줄이겠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구간에 각각 8㎡ 크기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그 위에 수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랑꽃참포 128본을 심기로 했다.

나주시 회진교와 구진교 구간은 매년 영산강에서 녹조가 가장 먼저 관찰되는 곳으로 올 들어서는 예년보다 1개월 빠른 지난 5월부터 녹조가 발생했다.

큰 비가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물이 정체된 구간으로 악취가 심하고 물고기 폐사도 수시로 발생한다.

그러나 환경당국의 영산강 수질정화 식물 식재 사업은 사업규모를 감안하면 녹조 발생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녹조를 막기 위해서는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녹조를 완벽하게 억제할 순 없었지만 이미지도 개선하고 수생태계 복원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 비소식...다들주부터 장마 시작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돌풍과 소나기가 광주와 전남을 한바탕 적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늦은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18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도~20도, 낮 최고기온은 27도~30도로 일부 지역엔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우량은

5~30mm. 20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7도~19도, 낮 최고기온은 23도~26도로 낮부터 밤 사이 5~4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오는 25일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TBC GOLF 2015 Golf Academy Wangjungwon Main Sponsor. Includes details about membership fee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G Esports. Text: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 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SG 에스골프.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